

2026년 3월 12일 목요일 017면
사람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문제 개선

경북 자치경찰위, 경산 압량초서 유관기관과 합동 현장 점검 가져

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10일 경산시 압량초등학교 일대에서 **경북도** 경찰청, 경산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개학기를 맞아 교통사고 피해가 반복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마련됐으며, 3월말까지 사고 다발지와 사전 점검 필요 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합동점검반은 현장에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방호울타리·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점검한 뒤,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서인교기자